

보도일시	2022. 04. 26.(수) 배포즉시	담 당	최윤규 전국대학생위원회 공보국장(010-9139-40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민주당사 3층 청년국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입법 즉각 완수하라”

- 청년의 삶과 희망 달린 입법에는 여야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위원장 양소영)가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오늘 26일, 더불어민주당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전국대학생위원회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대학생들에게 감긴 학자금 대출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과감히 깨뜨리겠다.” 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의결 전 전원 퇴장해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양소영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반대를 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학생 1인에게 지출하는 재정 규모는 OECD 전체 평균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며 “대학생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 고 반박했다.

또한 여당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는 주장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부 연금공단의 학자금 무이자 대여 제도를 들며 “이러한 제도들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나” 라며 반문했다. 나아가 미국의 학자금 대출 원금 탕감, 유럽의 대학교 무상교육제 등을 반례로 제시했다.

나아가 “대학생들의 발목에 학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라는 족쇄를 더 단단히 채우면 청년들을 지옥 같은 주 69시간 노동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초부

자, 중소기업 세금은 깎아 주려 하면서 돈 없고 힘없는 대학생들 학자금은 이자까지 털어가려는 심산이 아니길 바란다” 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당장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입법에 협조하라” 고 일갈했다.

한편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해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주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나” 라며 “일방처리해서라도 반드시 관철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1. 기자회견 사진



붙임2. <전국대학생위원회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입법촉구 기자회견> 회견문

<전국대학생위원회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입법촉구 기자회견>

대한민국의 대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무거운 족쇄를 감고 사회에 떠밀려 나와야 합니다.

그 족쇄는 바로 학자금 대출 원리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이 족쇄를 과감히 깨뜨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대환영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망언과 함께 재정 지출을 유발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일부 연금공단에서는 이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학생 1인에게 지출하는 금액은 OECD 국가들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학생을 위한 재정지출을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학자금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유럽 국가의 대학생들은 학자금 없이 무료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대학생들의 발목에 학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라는 족쇄를 더 단단히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더 무거운 족쇄로 청년들을 지옥 같은 주 69시간 노동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혹은 수십억 원 부자들 종부세, 수십조 원 기업들 각종 세금은 깎아 주려 하면서, 돈 없고 힘없는 대학생들 학자금은 원금에 이자까지 탈탈 털어 먹겠다는 심산이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당장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입법에 협조하십시오.

저희는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진영논리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은 전부 반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앞으로의 삶과 희망이 달려 있습니다.

정녕 진영논리에 대학생들의 운명을 갈아 넣을 생각이십니까?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입법에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십시오.

대한민국 청년들이 족쇄를 벗어던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집권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십시오.

청년의 삶에 여야란 없습니다. 진영논리도 없습니다. 정치공세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당연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일동